



계성산우회보

제 40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4월 30일(월)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제9회 계성총동창회 기별등반대회

팔공산 파계사에서 개최

1. 일 시 : 2007년 5월 13일(일) 09:00

2. 모임장소 : 파계사 주차장(101번, 101-1번 버스 종점)

3. 코 스

- 선 수 ▷파계사 주차장 - 능선 - 파계재 - 파계봉(160정상 번호판) - 산림욕길 따라 하산 - 주차장(약 6Km)
- 일반응원 ▷주차장 - 파계재 - 160정상 번호판 - 산림욕길 따라 하산 - 주차장(소요시간 3시간)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모교 교가에도 팔공산, 너무나 친근한 산, 한번 더 되새기면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산, 한티재에서 갓바위까지 이어지는 17Km 능선, 비로봉을 주봉으로 등

봉, 서봉, 파계봉, 관봉, 선봉 등 이름 모를 수 많은 봉우리와 계곡, 불교문화의 성지답게 동화사, 은해사, 송림사, 파계사, 부인사 등 사찰과 암자가 산재해 있는 곳이다. 금년 등반대회는 파계사에서 출발하여 파

계사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로 총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반~5시간 정도 소요된다.

출발점은 주차장 왼쪽 등산로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 30여분 오르면 1심판의 확인도장, 소나무숲 길을 1시간여 즐겁게 가면 2심판의 확인도장, 주능선에 당도하여 적당한데서 점심식사, 식사 후 시내쪽으로 관망하면 왼쪽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뒤편은 응해산이 삼각형으로 뽀족이 솟아 올랐고, 오른쪽으로는 역시 뽀족한 산, 대구은행 연수원 뒤편 대구시 경제산업 도덕산이 우뚝 솟아있다.

계속 능선길 따라 가면 파계재에서 3심판의 확인, 20여분 후 160정상 표지판에서 하산. 하산길은 환상의 길이니 어쩔 어쩔 이렇게 좋은 곳이..

좌우로는 연달래, 진달래, 철쭉이 어우러져 있고 땅 위로는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 솔개피로 폭신폭신하고 하늘에는 아름답리 소나무가 햇빛을 가리우고, 매일 마시는 공기지만 이 곳에서 만큼은 싱그러운 맛이다.

5월 13일에는 꽃도 만개할 것이고 그날의 즐거움을 틀림없이 만끽하리라. 내려오는 길에 4심판, 5심판의 확인도장 필히 받는 것 잊지말도록.

오늘 등반대회는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땀도 흘릴리고 무겁고 힘든 코스를 지나 능선길의 조망 또한 일품이요, 하산길의 삼림욕 또한 일품이니, 올 등반대회는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으로 큰잔치 될 것임을 확신 한다.

글 · 류청웅(48회 · 등반대장)



집행부 소식

❖ 4월 5일(목) 산우회보 편집회의 및 기별 등반대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 4월 10일(화) 모교 식당에서 기별 등반대회 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 4월 21일(토) 등반대장 및 집행부와 심사위원들은 기별 등반대회를 위한 등반코스 사전답사를 가졌다.

❖ 4월 정기산행시 버스 정원 초과를 예상하여 52회 회원들의 산행 참여를 유보시킨점에 대해 전 집행부는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김덕수(50회)고문이 4월 산행시 30만원을 찬조 하였다.

기별 동정

◆ 제51회

4월 22일 4월 첫째주 일요일 총동창 산우회에서 다녀온 사랑도 칠현산을 30명의 회원이 다시 산행을 하였다.

◆ 제52회

4월 22일 학일온천 뒤편 학일산으로 산행을 하였다.

◆ 제53회

4월 8일 비슬산으로 29명(부부동반)의 회원이 활짝핀 참꽃을 감상하며 산행을 즐겼다.

◆ 제55회

4월 8일 마산 천주산을 46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산행 후 대구에 도착하여 수성구 소재 부림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는데 산행을 하지 못한 14명의 회원이 추가로 합류하여 6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회장에 윤태일, 등반대장 류영한, 총무에 김 연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동창산우회에서 류청웅(48회) 등반대장과 남기진(51회), 정하룡(52회) 홍보부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저녁식사는 소갈비살로 오유인 회원이 식대를 전부 부담하여 한층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총회를 가졌다.

◆ 제62회

4월 15일 용지봉으로 산행을 하였다.

◆ 제63회

4월 22일 청도 화악산으로 25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산행 후 한재 미나리와 삼겹살로 하산주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제65회

4월 15일 계룡산으로 25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69회

3월 25일 팔공산 가산산성을 등반 후 짬짬방에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날을 보냈다.

◆ 제70회

4월 15일 대덕산으로 15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안나푸르나 트레킹

히말라야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들

해 외여행을 어지간히 다녀본 사람이면 한번쯤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오지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나도 수십 년간 공무로 또는 순수 관광차 어렵잡아 30여 차례 외국을 다녀본터라, 이제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 보다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작년에는 몽골, 제작년에는 베트남을 다녀왔고 이번에는 네팔 트레킹을 실시하였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시로 가는 하늘길은 상해·홍콩·방콕 중 하나를 경유해야 들어 갈 수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대한항공이 인천 ↔ 카트만두 직항노선을 개설하여 매주 월요일에 운항하고 있어 네팔 여행이 종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금년 설이 일요일이라 차를 모시고 연휴를 이용해서 대한항공 비행시간에 맞추어 월요일에 출발해서 다음 월요일에 현지에서 귀국하는 8박 9일 일정을 잡았다.

2월 19일 10시 20분에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7시간을 비행하였지만 별로 지루하지 않았고, 특히 착륙 1시간 전부터 쾌청한 날씨 덕에 히말라야의 연봉이 새하얗게 구름인양 구름 위에 길게 뻗어 있어 난생 처음 육안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하늘위에서 볼 수 있었다.

정규 비행시간은 6시간인데 심한 맞바람으로 1시간 연착을 하였지만 쾌청한 날씨 덕에 카트만두의 산들과 띄엄띄엄 들판과 집들을 볼 수 있었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가 넘어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다.

네팔에서 가장 고급이라는 하이얏 호텔에서 1박을 하고 2일째인 2월 20일부터 트레킹이 시작되었다.

트레커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14명으로 나와 아들놈, 멀리 땅끝마을 해남에서 온 여고생 등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일행 14명을 보조하기 위해서 스탭들이 한국에서부터 동행한 여행사 책임자와 네팔인 가이드·보조가이드·포타·쿠커·치킨보이 등 현지인이 20명이 훨씬 넘었다.

안나푸르나 트레킹 출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카트만

두에서 포카라(네팔 제2의 도시)까지 승용차 또는 항공노선을 이용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예티(Yeti, 네팔어로 설인이라는 뜻)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국내선을 이용했는데 비행기에서 우측 창으로, 길게 뻗은 안나푸르나의 눈 덮힌 연봉을 볼 수 있어 벌써부터 트레킹의 즐거움에 젖어 있는 사이에 포카라 공항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포카라 공항에서 트레킹 출발지점인 나야콜까지 1시간 30분 정도 승합으로 달리는 동안 차창으로 바라본 네팔인들의 사는 모습은 흥미있다고 보다 약간 숙연하기 까지 하였다.

내가 6.25 동란을 겪었던, 잘 봐주어야 1960년대 초 그 때의 거리 모습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이 많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맨발 또는 슬리퍼를 신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굶주린 탓인지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는 어린이들, 각양 각색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일 듯 말듯한 잔잔한 미소다.

트레킹 초입에서 입산 허가를 받는 동안 바로 옆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시간

수업을 하는 것을 한참 보았다.

저 멀리 아직 미 답봉이라는 마차푸차레 (6,933m) 봉을 배경으로 아늑하게 자리잡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인듯한 어린이들이 학년별로 저학년에서 상급생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장에 정렬하여, 선생님의 북소리와 구령에 맞추어 체조(우리의 맨손체조와 다른 스트레칭에 가까운 동작)를 하는데 저학년들의 장난끼 어린 동작과 우리를 보고 밝게 웃으면서 선생님 몰래 인사하는 모습이 깜찍하고, 천진난만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모두 깨끗하게 흰색 바지에 검정색 스웨터 체육복을 입고 영어로 설명을 하고 구령을 하는 것을 보니 꽤 잘 사는 집안의 어린이들이나 모양이다.

히말라야 산속에서의 5일간

<트레킹 1일째>

트레킹 시작 지점은 나야콜이다. 여기서 비렌타니 마을까지 40분 정도 걸어서 점심 휴식 시간 2시간 정도 가진 뒤 오후에 숙소가 있는 힐레(해발 1,475m) 마을까지 약 3시간 산행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느 산과 같이 계곡이 있고 육산 휴길인 오솔길이 계속되고 마을 입구에서

부터는 조금 넓어지는 길이다. 산행 중 쉬는 시간에 조그마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줍기위해 손을 내리다가 어떤 식물에 약간 스쳤는데 벌에 쏘인 것 같이 따가웠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영어명으로 '닛들'이라는 1년생 식물로 독성이 강하지만, 현지인들은 나물로 국을 끓여 먹는 식용 식물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숨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동행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걸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선두를 유지하면서 보조가이드(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아리랑을 가르치면서 유쾌한 산행을 하였다. 해가 지기전 안나푸르나 연봉을 배경으로 고즈넉이 자리잡은 힐레 마을의 룯지에서 여장을 풀었다.

트레킹 기간중 곳곳에 룯지, 게스트 하우스, 호텔 등의 간판이 달린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금 큰 산장 같은 목조 또는 시멘트 건물이었다.

<트레킹 2일째>

트레킹 기간 중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8시에 산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힐레에서 율레리 마을(해발 1,960m)을 지나

번단티 마을까지 3시간 산행을 하고 1시간 30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고라파니 마을(2,750m)까지 총 6시간 산행을 하였다. 대략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룯지 또는 게스트 하우스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5분 정도 휴식하곤 하였는데 산행중에 만난 네팔인은 정말 순수하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합장을 하면서 빙긋이 웃는 인사도 반가웠고 어디를 가든 어린이들이 들쭉거리는 것이 우리의 농촌과 비교되었다. 여행자들이 그들에게 주로 초콜렛, 사탕 같은 먹을 것을 주는데 그것 보다는 연필이나 공책같은 학용품준비해 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발 2,000m 고도부터는 10여일 전에 1m 정도 내린 적설로 주위 산은 흰색이고 나무들은 눈속에서도 잎이 싱싱한 상록의 원시림이고, 굽이 굽이 이어진 산길은 미끄럽고 질퍽질퍽 하였다. 눈속에서도 나무가 푸른 것은 네팔의 기후가 아열대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심심찮게 만나는 당나귀 떼들의 방울소리와 터벅터벅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도 듣기 좋았다. 계곡과 숲사이에 무리지어 노니는 원숭이들의 재롱도!

<다음호 계속>

글· 황성길(51회 · 직전회장)



▲ 3,000m 높이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막내 아들과 함께.



등산장비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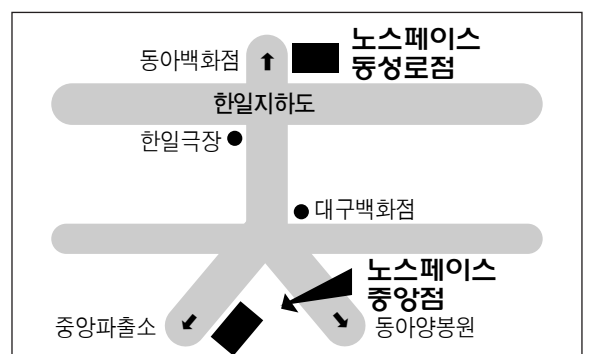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 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산행기

바다의 넓은 마음, 산의 높은 기상을 가슴에 담은 뜻깊은 산행

4월 산행을 간단다.!!!

근데 배타고 간단다.!!! 이상하다? 요즈음은 배타고 산행을 가는 경우도 있는가보다.

사전 지식도 없이 그냥 4월 산행은 "사랑도"라는 말만을 듣고 토요일 저녁부터 잠을 못 이루다 늦잠을 잤다.

언제나 그랬듯이 산행을 가는 아침은 웬지 더 피곤한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냥 택시타고 갈려는데 오늘 따라 와이프가 바래준단다. 평소 와이프 성격이라 그냥 넘어 갈려다가 갑자기 감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 웬지 서글퍼지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인가? 생각할 겨를 없이 모교 정문에 도착했다. 오늘따라 차들이 보통의 2배가 넘는 듯 했다.

오늘 산행이 아니었으면 어디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 가는 줄 알았을 것이다. 확실히 섬으로 산행을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평소보다 많은 인원 에 나온 동문들 전부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모진 훈련 뒤 담배 일발 장전이라도 하듯이 전부 불 땡겨 긴 연기 내뿜는 순간 이번 산행이 섬으로 간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 눈앞에 들어왔다. 그건 바로 선배인지 또는 후배인지 모르지만 편의상 동문이라 하겠다.

몇 몇 동문이 바다 낚싯대에 아이스박스를 메고 나타났던 것이다. 지난 주에 본인이 바닷가 갯바위 낚시 갔다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걸 아는데 할 겨를도 없이 나는 그 동문들이랑 친하고 싶었다.

산보다도 바다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매주를 멀다하고 먼 남쪽 바다를 쫓아 다녔던 것이다. 하지만 곧장 버스에 올라야 했고 조금은 우리보다 높은 기수들이랑 하나의 버스에 올랐다. 아마 우리 기수(69회)가 제일 막내였던 것 같았다.

버스에 타서 제일 뒷좌석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도균(산우회 회장), 우종각(우종식 69회 동기

중 법적으로만 총각), 송진석, 김근호, 필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김도균 회장이 준비해온 패지고기 삼겹살, 양념목살 냄새를 맡으며 이번에는 빠진 양념과 밀반찬이 없음을 확인하고 흐뭇한 표정들을 지으며 출발하게 되었다. 참고로 지난번에 양념이랑 밀반찬 없어 그릇 들고 많이들 동남(?)했던 경험 이 있어 모두들 걱정했던 참 이었다

배 시간에 맞추기라도 하듯이 버스는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 주었고 날씨도 우리들의 산행을 도와주듯이 적당한 비와 햇살을 비추어 주는 가운데 고성 선착장에 도착 했다.

많은 동문들이 사랑도 아랫섬에 도착 한 것은 뱃길로 한 40분 가량 달렸을 즈음이었다. 평소의 산행에서 맡아보지 못한 짠 냄새를 맡으며 아랫섬에 도착해서 바라본 칠현산(해발349m)은 그리 높지도 않으면서 아담하기까지 했다. 또한 섬 안에 있는 산이라 그리 부담도 되지 않았다. 모두들 선착장 앞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출발했다.

처음 출발을 다른사람 보다도 조금 일찍 했다. 항상 산행에서 처진 나로서는 이번에는 우짜든지 처지지 않고 따라붙을 생각이었다. 숨 쉴틈도 없이 한참을 건다가 뒤돌아보면 이걸 아는데 전부 옆에서 걷고 있었다. 참고로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앞산도 한번 올라가 보지 않았음) 작년 남덕유산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끔찍하기만 했다.

작년 69회 동기회 산우회를 창립해서 덕유산 산행을 했는데 눈은 와서 길은 미끄럽지, 정상에 죽기 살기로 올라가면 동기들은 라면 다 끓여먹고 출발하자면서 남은 국물 조금 주고는 내려가 버리지, 죽기 살기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해서 기어 내려오다 싶이 내려오면 2시간 전에 내려와서 고기 구워먹고 있으면서 쉬고 있지, 그날 이후로 다짐한 것이 산 오르는 법(?) 하고는 말도 안쉬기로 다짐을 했었다. 근



▲ 바닷가 선착장에서 69회 산우회원들과 기념 촬영.

데 오늘 또 이렇게 바다 건너 섬까지 와서 산을 오르고 있으니 세상사 막말 할 것이 못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상은 아니지만 고개 하나를 넘으면서 재미난 일도 있었다.

나랑 마찬가지로 김근호 동기가 처음 산행을 했단다. 근데 배가 보통배가 아니어서 전부들 한 마디씩 하는데 몇 달 된(?) 모습이라고 전부 걱정반 농담반 하면서 오르는데 계속 쳐져서 오고 있었다.

우 총각이 뒤에서 열심히 동행을 하면서 오르는 것이 이런 게 동기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가파른 고개부분에서 몸에 이상이라도 생긴 듯이 큰일 난 듯이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야! 갑자기 몸이 이상이다. 좀 살려도" 순간 먼저 가파른 고개부분에 올라선 도균이랑 진석이와 나는 "원일이야? 갑자기 몸에 쥐라도 난거야?" 하면 걱정스러운 말들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경사가 거의 70도 정도 되는 한사람 밖에 지나가지 못하는 지점에서 거리는 거의 50cm 뒤에 마침 여자 분이 따라오고 계속

줄지어 오르고 있었다. 다음 순간 우리는 근호의 고함소리에 모두들 자지러지는 줄 알았다. "야, 죽겠다. 지금 방귀가 나올려고 한다." 순간 우리 모두는 정말 근호가 방귀를 끼었는지 확인 할 수 없었지만 뒤에 분 엄청 괴로웠을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이 지면을 빌려서 죄송한 맘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웃으면 정상까지 가는 동안 가끔은 땀으로 젖은 몸을 식혀 주기라도 하듯이 간간히 비도 뿌려주고 다시 좀 젖었다 싶으면 햇살로 말려 주어서 무사히 선착장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다른 기수들 보다 조금 일찍 내려와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도균이가 가져온 삼겹살이랑 양념목살을 내어 구워내기 시작했다. 각자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심히 굽고 마셨다.

나는 산행이 서툴러 오르면서 먹을 것이며 마실 것 다 내어 놓고 같이 나누어 먹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짐이 없어 쉽게 산행을 할 수가 있었다. 산을 오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일까?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

내 배낭에 먹을 것을 가득 담아서 산을 넘어왔다면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는 결국 다 모여서 나누어 먹고 빈 배낭 메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인생사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산을 오르면서 힘들고 목마를 때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시면 산을 넘는 동안 무척 가벼운 발걸음이 되듯이 우리 모두 내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설사 산을 오르는 동안 나누어 먹지 않아도 결국은 모여서 다 비우고 빈 배낭 메고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이번 산행은 바다와 더불어 새로운 경험을 한 산행이었다.

우리 모두 바다의 넓은 마음과 산의 높은 기상을 가슴에 듬뿍 안고 돌아갈 수 있었던 뜻있는 하루였던 것 같다.

계성69! 계성69! 파이팅!!!

바닷가 선착장에서 모두 배 깔고 앉드려 멋진 세레머니를 하면서 이번 산행을 마친다.

글 · 안재갑(69회)



東光環境(株)

DONG KWANG ENVIRONMENT

폐기물 운반 · 재활용 처리업

대표이사

장 동 식 (67회)

(704-17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263-6

TEL : (053)554-2281~2 FAX : (053)584-8755

H.P : 011-522-2208

4월 정기산행 사랑도 칠현산, 216명 참가

전날 뉴스에서 황사주의 경보가 있었음에도 이번 사랑도 칠현산 산행은 전례 없는 216명이란 인원이 참석하여 평소 2대~3대로 출발하던 동창회 산행의 기록을 깨고 5대의 차량이 모교를 출발하는 기록을 세웠다.

4월의 첫날이며 배도 타고 산행도 즐기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려한 탓인가 각 기수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를 희망하는 바람에 5대의 차량을 준비하고도 좌석이 부족하여 김시우 회장님의 기수는 다른 기수를 위해 회장님과 홍보를 맡으신 정하룡 선배님만 참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 산행이기도 하였다.

지면을 빌어 후배들과 동문들을 위해 양보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52회 선배님 기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1시가 다되어 고성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회원들은 칠현산을 오르기전 늦어도 3시까지 도착하여 5시반 배가 오기까지 기수별로 하산주와 회를 즐기기로한 기대에 부푼 탓인지 모두들 발걸음은 힘차고 가볍다.

바닷가 산이라 349m란 낮은 봉우리는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듯하였고, 정상올 오르면서 내린 비와 앞을 막는 황사안개로 인해 모두들 힘들었지만 가파른 바위산을 오르내리면서도 한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집결지에 모이는 질서정연함을 보여주었다.

배가 오기까지 2시간여의 시간동안 각자 준비한 음식들과 술로 기수별로 또는 선후배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들은 참으로 보기좋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인원 중 처음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번에도 꼭 참석하리라 결의를 보여주었고, 돌아오는 길에 기수별로 나누어 탄 차에서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회장님 이하 등반대장님들과 국장님, 총무님께서 휴게소마다 번갈아 탑승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셨고 대구로 오는 시간동안 즐겁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김시우 회장께서는 매번 산행시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실 것을 희망하셨고, 벌써부터 5월에 있을 총동창회 기수별 등반대회의 열기가 짐작이 간다.

11시가 다되어서야 모교에 도착하여 각자 종종걸음으로 내일을 위해 가정으로

향했는데 몇몇 동문들을 차안의 쓰레기를 정리하여 분리수거하는 참 계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산행에 참석한 기수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44회 : 채근수 ▷48회 : 류청웅, 변학준 부부, 손성구, 이달문, 이도익 ▷49회 : 이충호, 최 준 ▷50회 : 김덕수 부부, 강의경 부부, 김기원 부부, 김시원, 김일득 부부, 김찬희 부부, 김호일 부부, 남인식 부부, 박윤택, 박주영, 윤종옥 부부, 이병호, 이석순 부부, 이영원 ▷51회 : 권영호 부부, 김명숙, 박동고, 박재봉, 백학조, 이동희, 허종철, 황성길 ▷52회 : 김시우, 정하룡 ▷54회 : 우진권 부부, 최광영 부부 ▷55회 : 서상택 부부, 이종열, 정인재 ▷58회 : 곽일섭 부부, 김은홍, 안윤옥, 이근영, 이무영 부부, 이재천, 정종인 부부 ▷60회 : 김수동, 김영중, 김영호, 김인중 부부, 박병진, 박영태 부부, 백기홍 부부, 신 역 부부, 안규상 부부, 이인직, 이정우, 정익표, 정인호 부부, 주이광, 진동현 부부, 최명호 ▷61회 : 김성수, 석재호 부부, 성연복, 신동찬, 신문탁, 유 진 부부, 이승엽 부부, 임유상, 전상현 ▷62회 : 권영보, 김철용, 김태웅 부부, 방인철, 송근배, 신해웅 ▷63회 : 이윤하 부부, 고수환 부부, 김재룡, 김형국, 안승철, 이동원 부부, 이상준 부부, 이세탁, 이일우 부부, 이 탁 부부, 이태훈 부부, 장경호, 장종국 부부, 정국열 부부, 정성재 부부, 최내영 ▷65회 : 곽석현, 김순우, 김영문, 김종대, 김진결, 박영태, 신상규 부부, 오상달, 주영성, 한 용 ▷67회 : 공정섭 부부, 김봉석, 김성연 부부, 김하식 부부, 박득현, 박종후, 송권익 부부, 송준석, 윤정희, 이동곤 부부, 이승렬 부부, 이재면 부부, 이창엽 부부, 임재식, 장동식 부부 ▷68회 : 서희동 ▷69회 : 김근호, 김도균, 송진석, 안재갑 부부, 우종식 부부 ▷70회 : 김영천, 김왕진, 김우철, 김종직, 김현호 부부, 박상훈, 박준석, 서태호, 신대수, 엄옥현, 이동석, 이익동, 임홍식, 장대욱 부부, 조현영 부부, 최원길 부부 ▷71회 : 김대원, 김도현, 김병철, 김정연, 노규영, 마박열, 박범준, 박용상, 석준수, 송건호, 정만현, 정재천, 차봉준, 추쌍엽, 황덕문 ▷75회 : 도기창, 오창현, 우희경 ▷76회 : 장보일 <총원 216명 (자녀포함)>

글 · 김진결 (65회 · 편집위원)

산우회 탐방

계성 69회 산우회

69회 산우회는 2006년 1월 정기총회에서 김도균, 황종일, 신승철, 안재갑, 우종식 동기가 의기 투합하여 짝수 달에는 총동창산우회 산행, 홀수 달에는 동기산행을 하기로 하고 발족 첫해에는 회장없이 총무 1인 체제로 하기로 했다.

초대총무에 김도균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여 첫 산행지로 2006년 2월 총

도균 부인인 이은주 씨가 지난달의 흥분을 가슴속에 담고 따라 나섰다가 너무 긴 산행에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69회 산우회 결성 기간이 짧은 관계로 많은 활동은 하지 못하였으나 2007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김도균, 총무에 신승철 동기가 선임되어 보다 나은 69회 산우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



▲ 2006년 2월 남덕유산 산행을 마친 69회 산우회원들.

동창산우회 남덕유산 산행을 시작으로 3월 팔공산 동기산행, 4월 노자산 산행으로 몸을 다진 후 5월 개교 100주년 기념 기별등반대회에 12명이 참가하여 반응석, 이강호, 정한상, 이규호, 이승돈 동기의 빛나는 활약으로 하산 순위 1위, 2위라는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동창산우회 산행 참가 횟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YB팀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6월 산행은 잠시 쉬고, 7월 금원산 자연 휴양림에서 가족 동반 '나물채취 및 하계휴양'을 실시하여 맑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속에서 같이 온 가족들의 찬탄이 솟아졌으며(경치와 계곡이 너무 좋은 관계로) 채취한 곰취나물과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담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를 하며 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결실을 거두었다.

9월 지리산 삼신봉에서는 회장(김

력하고 '계성 총동창산우회'에 밑거름이 되도록 활발히 활동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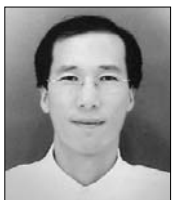
69회 산우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도균, 신승철, 황종일, 이규호, 이승돈, 안재갑, 우종식, 정한상, 반응석, 장원경, 송승중, 이강호, 주재석, 김창수, 송진석, 노현석, 이동찬, 김종율, 전만석 (이상 19명)

글 · 김도균(69회 · 산우회 회장)



산우회 회장
김도균



산우회 총무
신승철

발 축 전

계성 총동창산우회 제5대 회장단 출범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성 69회 산우회원 일동 · Home-Coming 추진위원 일동

산우회 회장 김도균 / 총무 신승철 · Home-Coming추진위원 회장 반응석 / 총무 김종율